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행에 대한 인식 - CBAM 모형에 기초하여-

이인숙* · 박미정** · 채정현***1)

서운중학교* · 청덕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Home Economics teachers' concern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classes: Based on the concerns based adoption model(CBAM)

Lee, Insook* · Park, Mijeong** · Chae, Jung Hyun***1)

Home Economics Teacher, Seowoon Middle School · Cheongdeok Middle School***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age of concern, the level of use, and the innovation configura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regard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HE) classes.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sent through mails and e-mails to middle-school HE teachers in the whole country selected by systematic sampling and convenience sampling. Questionnaires of the stages of concern and the levels of use developed by Hall(1987) were used in this study. 187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by using SPSS/window(12,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for the stage of concerns of HE teachers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the information stage of concerns(85.51) was the one with the highest response rate and the next high in the following order: the management stage of concerns(81.88), the awareness stage of concerns(82.15), the refocusing stage of concerns(68.80), the collaboration stage of concerns(61.97), and the consequence stage of concerns(59.76).

1) 교신저자: Chae, Jung-Hyu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ungbuk 363-791 The Republic of Korea

Tel: 043-230-3758, Fax: 043-231-4087, E-mail: jchae@knue.ac.kr

2)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2012년 KNUE 연구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Second, the levels of use of HE teachers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was highest with the mechanical levels(level 3; 21.4%) and the next high in the following order: the orientation levels of use(level 1; 20.9%), the refinement levels(level 5; 17.1%), the non-use levels(level 0; 15.0%), the preparation levels(level 2; 10.2%), the integration levels(level 6; 5.9%), the renewal levels(level 7; 4.8%), the routine levels(level 4; 4.8%).

Third, for the innovation configuration of HE teachers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more than half of the HE teachers(56.1%) mainly focused on personality education in their HE classes; 31.0% of the HE teachers performed both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a small number of teachers(6.4%) focused on creativity education; the same number of teachers(6.4%) responded that they do not focus on neither of the two.

Examining the level and type of performance HE teachers applied, the average score on the performance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was 3.76 out of 5.00 and the mean of creativity component was 3.59 and of personality component was 3.94, higher than standard. For the creativity education, openness/sensitivity(3.97) education was performed most and the next most in the following order: problem-solving skill(3.79), curiosity/interest(3.73), critical thinking(3.63), problem-finding skill(3.61), originality(3.57), analogy(3.47), fluency/adaptability(3.46), precision(3.46), imagination(3.37), and focus/sympathy(3.37). For the personality education, the following components were performed in order from most to least: power of execution(4.07), cooperation/consideration/just(4.06), self-management skill(4.04), civic consciousness(4.04), career development ability(4.03), environment adaptability(3.95), responsibility/ownership(3.94), decision making(3.89), trust/honesty/promise(3.88), autonomy(3.86), and global competency(3.55).

Regarding what makes perform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difficult, most HE teachers(64.71%) chose the lack of instructional materials and 40.11% of participants chose the lack of seminar and workshop opportunity. 38.5% chose the difficulty of developing an evaluation criteria or an evaluation tool while 25.67% responded that they do not know any means of perform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Regarding the better way to support for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the HE teachers chose in order from most to least: 'expansion of hands-on activities for students related to education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4.34), 'development of HE classroom culture putting emphasis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4.29), 'a proper curriculum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that goes along with students' developmental stages'(4.27), 'securing enough human resource and number of professors who will conduct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4.21),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and value of the education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4.09), and 'educational promotion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supported by local communities and companies'(3.94).

Key words: 가정과교사(Home Economics teacher), 관심(concern), 창의·인성교육(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교사의 관심에 기초한 도입 모형(concerns based adoption model: CBAM)

I. 서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의 내용면에서 기존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합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양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인성 교육’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교육과정은 학문의 한 분야이며 학교 안의 전반적인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사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 의도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며,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태도(홍후조, 2002)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도 교사들이 수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고,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교육과정 개발 시 교사의 참여의식이나 관심수준을 고려하지 않기에(이용운, 2004) 교사들은 교육과정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편이다.

채정현(1996)은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내용이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실행된다면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가 갖고 있는 감정, 느낌, 관심을 조사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성공과 실패가 교육과정을 직접 실행하는 교사들의 관심과 인식, 이해 정도와 실행 의지에 달려있다(이용운, 2004)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성’을 양성하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창의·인성 교육은 기존의 각각 행해지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합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박미정과 김영애(2011)는 이러한 창의·인성 교육이 그 내용면에서 기존의 가정과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가정과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각각 나누어서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과에서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구별하여 연구하였으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병행하는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창

의·인성 교육을 중점 과제로 내세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된 시점에서, 가정과 교사들이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실행 수준, 실행 실태를 진단하고 파악하여 가정과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 교사들이 가정과 수업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행 실태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교사의 관심과 실행 수준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를 알아본다.

둘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을 알아본다.

셋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실태를 알아본다.

II. 관련문헌 고찰

1. 창의·인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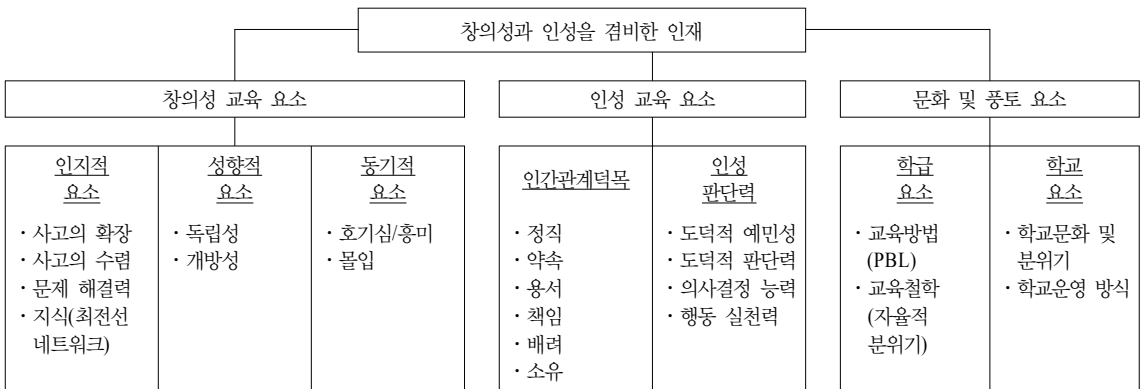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12월 발표한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에 따르면, 창의·인성 교육이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교육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p.7). 이러한 창의·인성 교육은 기존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동시성을 가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창의·인성 교육 개념에 있어서 첫째, 포괄성이란 교육의

대상이 영재 등 특정 학생을 위한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을 말한다. 즉, 교육 내용도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환경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노력까지 포괄한다. 둘째, 종합성이란 일부교과나 활동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가정교육 등을 통해 유아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자질교육이라는 점을 말한다. 셋째, 미래지향성은 부정적 이미지의 관행적인 교육이 아니라 ‘즐거움, 스스로, 중요함’ 등 긍정적 이미지의 미래형 교육을 말하며, 이러한 개념적 특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창의·인성 교육은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함양하는 동시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창의성과 인성은 개방성 등과 같이 그 구성 요소 자체가 같거나, 협동 능력 향상 등과 같이 인성 개발이 곧 창의성 개발로 이어져 동시에 교육할 때 그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문용린과 최인수(2010b)는 창의·인성 교육을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 전략이라 하였다. 한편 최준환 외(2009)는 모든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글로벌 리더나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 하였다.

창의·인성 교육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홍배식, 2010),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창의·인성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재훈(2010)은 이러한 창의·인성 교육의 도입이 더 이상 주입식 교육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며, 여기에서 인재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겸비한 사람이라 제안하였다. 김왕동(2010)은 창의·인성 교육의 차원을 창의 사회를 리드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 사고 덕목과 과거로부터 중시 되어오던 윤리적 덕목(협의의 인성 교육),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 시민 덕목(광의의 인성 교육)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창의적 사고 덕목과 윤리적 덕목, 글로벌 시민 덕목을 골고루 갖추었을 때 창의·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은 창의·인성 교육 모형으로 문용린과 최인수(2010b)의 창의·인성 교육의 기본틀에 김왕동(2010)이 제시한 창의·인성 교육 차원에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문화 및 풍토 요소를 포함시켰다. 또한 창의성 교육 요소를 인지적, 성향적, 동기적 요소로 분류하고, 인성 교육 요소를 인간관계 덕목과 인성 판단력으로 구분하였으며, 문화 및 풍토 요소를 학급 요소와 학교 요소로 구분하여 각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창의·인성 교육의 기본틀

출처: 문용린, 최인수(2010b), p.24

2.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선행연구

III. 연구 방법

가정과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는 2010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박미정과 김영애(2011)가 ‘가정교과에서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박미정과 김영애(2011)는 가정과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기 전에 창의성과 인성에 대해 지녀야 할 전제와 특징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창의·인성 교육을 모든 교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용린과 최인수(2010a)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본틀’에서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후 박미정과 김영애(2011)는 문용린과 최인수(2010a)의 기본안과 최유현 외(2010)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과(기술·가정)의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요소들을 토대로 하여 2007년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표 2>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러한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는 유창성/융통성, 상상력, 유추성, 정교성, 논리/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발견능력, 문제해결능력, 개방성/민감성, 독창성, 호기심/흥미, 몰입/공감의 창의성 요소 12가지와 신뢰/정직/약속, 협동/배려/공정, 책임(감)/소유, 의사결정능력, 실천력, 자율성,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글로벌역량, 진로개발능력, 환경친화능력의 인성 요소 11가지다.

1. 연구 대상과 표집 방법

본 연구는 가정과 교사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갖는 관심과 실행 수준, 실행 실태를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해 전국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가정과 교사란 중학교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기술·가정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중 가정영역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를 말한다.

연구 대상의 표집은 off-line과 on-line으로 나누어서 편의 표집과 체계적 무선 표집을 병행하였다. 먼저 off-line의 편의 표집의 경우는 2011년 4월 27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가정과교육연구회 총회에 참석한 경기도 가정과 교사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off-line의 체계적 무선 표집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의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게재되어 있는 전국 중학교 3,114개 학교를 모집단으로 하고, 이를 체계적 무선 표집을 통해 서울시 75개 학교, 경기도 114개 학교, 인천 25개 학교, 대전 17개 학교, 부산 35개 학교, 대구 24개 학교, 울산 12개 학교, 광주 17개 학교, 강원 31개 학교, 충북 25개 학교, 충남 39개 학교, 전북 41개 학교, 전남 51개 학교, 경북 54개 학교, 경남 54개 학교로 총 614개의 학교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on-line

<표 1> 가정교과에서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특징

	특징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자질이다. · 가정과 교과 내용과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며,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창출해내게 한다. ·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대상으로 ‘맥락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주로 발현된다. · 개별적인 사실이나 기능으로서가 아닌 나, 가족, 사회와 같이 상호작용하는 집합체, 또는 복합체로서의 ‘상호연계’를 고려한다. · 산물의 독창성을 절대적 기준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의 질적 변화를 통해 평가된다.
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은 사고, 정서, 행동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인성의 기초가 되는 핵심 윤리적 가치(배려, 보살핌, 책임감 등)를 증진시켜야 한다. · 인성 개발을 위해 ‘평범위하고 의도적이며, 친행동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학문적 교육과정을 의미있게 함으로써 모든 학습자를 존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 · 장기적이고 광범위해야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박미정, 김영애(2011). p.30, 33

〈표 2〉 2007년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

창의·인성 교육 요소		설명
창의성 교육 요소	유창성/융통성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생성해내는 사고 능력
	상상력	이미지나 생각을 정신적으로 조작하고,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그릴 수 있는 사고 능력
	유추성	사물이나 현상, 또는 복잡한 현상들 사이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내적 관련성을 알아 내는 사고능력
	정교성	처음 제안된 아이디어를 다듬어 더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
	논리/분석적 사고	부적절한 것에서 적절한 것을 분리해 내고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편견, 불일치, 견해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사고 능력
	문제발견능력	새로운 문제를 찾고, 형성하고, 창조하는 것
	문제해결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해가는 일련의 복잡한 사고 활동
	개방성/민감성	다양한 아이디어나 입장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
	독창성	자기만의 방식으로 현상을 판단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호기심/흥미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과 관심을 갖는 성향
몰입/공감	어떤 일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게 되는 완벽한 주의 집중 상태	
인성 교육 요소	신뢰/정직/약속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행하는 것
	협동/배려/공정	공동의 선을 위하여 협력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다문화, 다학문 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상충되는 의견과 합의에 이르는 능력
	책임(감)/소유	주인의식으로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타인의 지적/물적 능력, 성과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의사결정능력	보다 바람직한 가치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
	실천력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한 후에 그것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율성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
	자기관리능력	건강관리, 시간관리 등 자신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시민의식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공동체적 생활 태도 또는 마음의 자세
	글로벌역량	국제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진로개발능력	자신에 대해 이해와 여러 작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 도달하기 위해 실천해 나가는 과정
	환경친화능력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능력

출처: 박미정, 김영애(2011). p.37, 38

표집의 경우, 우편 설문 조사 대상을 제외한 학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정과 교사 이메일 주소 226개를 임의로 표집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

사의 관심,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과 실행 실태, 일반적 특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로 김경자(1993)가 우리말로 번역한 Hall(1987)의 관심 단계 질문지 35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관심 단계는 <표 3>에서 보듯이, 0~6단계로, 지각적(단계0), 정보적(단계1), 개인적(단계2), 운영적(단계3), 결과적(단계4), 협동적(단계5), 강화적(단계6) 단계로 분류된다. 이 질문지는 가정과 교사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표 3〉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 단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		문항 번호	Cronbach'α값
무관	지각적(awareness) 관심 (단계0)	1, 8, 15, 22, 29	.63
자신	정보적(information) 관심 (단계1)	2, 9, 16, 23, 30	.70
	개인적(personal) 관심 (단계2)	3, 10, 17, 24, 31	.84
업무	운영적(management) 관심 (단계3)	4, 11, 18, 25, 32	.45
결과	결과적(consequence) 관심 (단계4)	5, 12, 19, 26, 33	.86
	협동적(collaboration) 관심 (단계5)	6, 13, 20, 27, 34	.75
	강화적(refocusing) 관심 (단계6)	7, 14, 21, 28, 35	.70
전체		35문항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각 질문은 8점 Likert scales를 이용하여 0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 중 교사 자신의 관심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를 경우에는 0점, 동의하지 않을수록 1점에서 2점, 다소 동의하면 3에서 4점, 대체로 동의하면 5에서 6점, 매우 동의하면 7점으로 표시한다. 35문항의 질문지는 5문항씩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의 Cronbach's alpha 값은 .45 ~ .86 이었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을 묻는 문항은 김정자(1993)가 우리말로 번역한 Hord(1987)의 면담 질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표 4>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단계(수준0), 탐색 단계(수준1), 준비 단계(수준2), 기계적 실행 단계(수준3), 일상화 단계(수준4), 정교화 단계(수준5), 통합 단계(수준6), 갱신 단계(수준7)의 8단계의 수준에 따른 문항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하였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을 묻는

문항은 김정자(1993)가 우리말로 번역한 Hord, Rutherford, 그리고 Hall(1987)의 면담 질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사용하지 않는 수준에서 갱신 수준에 이르기까지 8단계의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설문지에는 수준에 따른 문항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하였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 도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과학기술부(2009a, 2009b, 2010),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에서 제시한 창의·인성 교육 관련 자료, 박미정과 김영애(2011)가 도출한 2007년 개정 가정과교육과정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와 앞선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5문항으로 창의·인성 교육에서 치중하여 실행하는 교육, 글로벌 창의 인재의 정의 인식, 창의·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 실행의 어려운 점, 지원 사항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가정과교육 전공 교수 1인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현장 교사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표 4〉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 수준 설문지 문항 내용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 수준	문항 내용	
수준 0	사용하지 않는(non-use) 수준	창의·인성 교육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몰라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수준 1	탐색(orientation) 수준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탐색하고 있다.
수준 2	준비(preparation) 수준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수준 3	기계적 실행(mechanical) 수준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을 익히는데 노력하고 있다.
수준 4	일상화(routine) 수준	창의·인성 교육을 있는 그대로 수정 없이 실행하고 있다.
수준 5	정교화(refinement) 수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창의·인성 교육을 수정하여 실행한다.
수준 6	통합(integration) 수준	창의·인성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위하여 동료 교사들과 협력한다.
수준 7	갱신(renewal) 수준	창의·인성 교육의 질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목표와 대안을 탐색한다.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설문지에는 성별, 연령, 기혼 유무, 담임 유무, 교직 경력, 최종 학력, 교사 자격 종류, 설립 유형, 학교 소재지의 9문항(선다형)과 창의·인성 교육의 중점적 실행 정도와 실천적 추론 수업 실행 정도를 묻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1차로 2011년 4월 27일 off-line 설문과 2차로 2011년 5월 3일부터 2011년 5월 31일 까지 우편설문, 그리고 3, 4차로 2011년 5월 1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on-line 설문을 통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총 4차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회수한 설문지 총 18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회수된 설문지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 편차, t검증, ANOVA검증을 산출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도는 각 교사 별로 각 단계의 문항의 원점수를 합하여 점수를 낸 후, 이를 Hall 등이 만든 표를 이용하여 원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었다. 그리고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기초로 관심도 프로파일을 작성하였다. 백분율 점수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단계를 개인의 관심 단계로 하였으며 같은 점수가 둘 이상일 때는 높은 수준의 단계를 개인의 관심 단계로 하였다. 또한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와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표 5>에서 보듯이, 여교사

(89.8%)가 남교사(10.2%)보다, 기혼교사(73.3%)가 미혼교사(26.7%) 보다 월등히 많았다. 가정과 교사의 연령은 40대(38.5%)가 가장 많았고 30대(25.7%)와 50대(23.0%)가 그 뒤를 이었으며, 20대(12.8%)가 가장 적었다. 교직 경력은 20년~30년 미만(41.2%)의 교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10년 미만(33.7%), 10년~20년 미만(15.5%), 그리고 30년 이상(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를 받은 교사가 연구 대상의 절반(52.9%)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학사학위를 받은 교사(40.6%)와 박사학위를 받은 교사(6.4%) 순으로 구성되었다. 다중 응답한 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92.0%)은 가정교사 자격증을 가졌고 기술 자격증을 가진 교사도 삼분지 일(33.7%)이나 되었다. 기타 전공 자격증(19.8%)을 보유한 교사도 19.8%나 되었고 기술·가정 자격증(5.9%)을 보유한 교사도 11명(5.9%)이나 되었다. 기술·가정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중 기타 전공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8명, 컴퓨터 자격증이 7명, 국어는 4명, 사회는 3명, 환경은 2명, 그리고 보육, 전자, 윤리, 특수, 화공, 조리, 의상, 건축 등은 각 1명씩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비담임 교사(52.9%)와 담임 교사(47.1%)가 비슷하였고,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75.9%이었으며, 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24.1%이었다. 근무 학교는 특별·광역시와 대도시(46.5%)가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33.2%)와 읍면지역(20.3%)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2.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

가정과 교사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갖는 관심 단계는 <표 6>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지각적 관심(단계0)에서부터 운영적 관심(단계3)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 관심(단계4)과 협동적 관심(단계5)은 낮았지만 강화적 관심(단계6)은 이들보다 조금 높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과 교사들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심이 있는 정보적 관심 단계(85.5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관심 단계(85.18)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가정과 교사들이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n	%
성별	여	168	89.8
	남	19	10.2
연령	20대	24	12.8
	30대	48	25.7
	40대	72	38.5
	50대 이상	43	23.0
결혼 여부	기혼	137	73.3
	미혼	50	26.7
교직 경력	1년 ~ 10년 미만	63	33.7
	10년 ~ 20년 미만	29	15.5
	20년 ~ 30년 미만	77	41.2
	30년 이상	18	9.6
최종 학력	학사학위	76	40.6
	석사과정 중이나 졸업	99	52.9
	박사과정 중이나 졸업	12	6.4
소유 자격증 (다중응답)	가정	172	92.0
	기술·가정	11	5.9
	기술	63	33.7
	기타	37	19.8
담임 유무	담임	88	47.1
	비담임	99	52.9
학교 설립 유형	국·공립	142	75.9
	사립	45	24.1
학교 소재지	특별·광역시와 대도시	87	46.5
	중소도시	62	33.2
	읍면지역	38	20.3
계		18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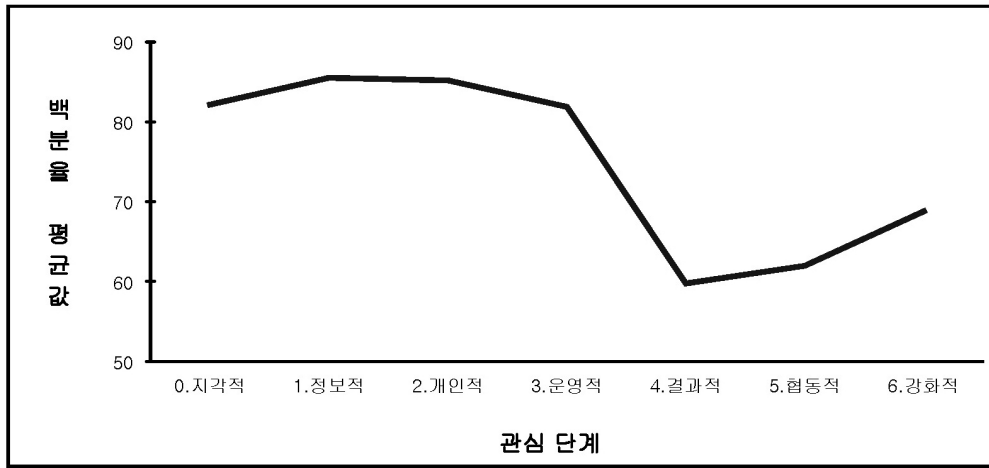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련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으로 인해 자신의 수업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관심 단계 중 초기 단계인 지각적 관심부터 운영적 관심 단계에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실행한 적이

없거나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결과적 관심 단계(59.76)와 협동적 관심 단계(61.97)는 낮게 나타났지만 강화적 관심 단계(68.80)는 이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강화적 관심(단계6)이 협동적 관심(단계5)과 결과적 관심(단계4)보다 높다는 것은, 교사들이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에 있어 개선책을 갖고 있는 교사가 다소 있다는

〈표 6〉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 단계

관심단계		백분율 점수 M(SD)	순위
무관	지각적(awareness: 단계0)	82.15(13.81)	3
	정보적(information: 단계1)	85.51(12.90)	1
자신	개인적(personal: 단계2)	85.18(12.11)	2
	운영적(management: 단계3)	81.88(13.77)	4
결과	결과적(consequence: 단계4)	59.76(22.36)	7
	협동적(collaboration: 단계5)	61.97(20.08)	6
	강화적(refocusing: 단계6)	68.80(21.20)	5



[그림 2]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 단계 백분율 평균값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예전에 실행하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개선책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어떠한 변화가 없는 한 새로운 혁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자 역, 1993 재인용). 다시 말해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이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가정과 교사들이 예전에 실행하던 형태로 즉,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각각 실행하는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창의·인성 교육이 기존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 어떻게 다르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교실현장에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여 가정과교육에 창의·인성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정과 교사들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낮은 단계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전체 가정과 교사들에게 창의·인성 교육의 도입 취지와 교육적 효과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정보는 구두나 서면 등 사용가능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교사들과 개별적 또는 소규모, 대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창의·인성 교육을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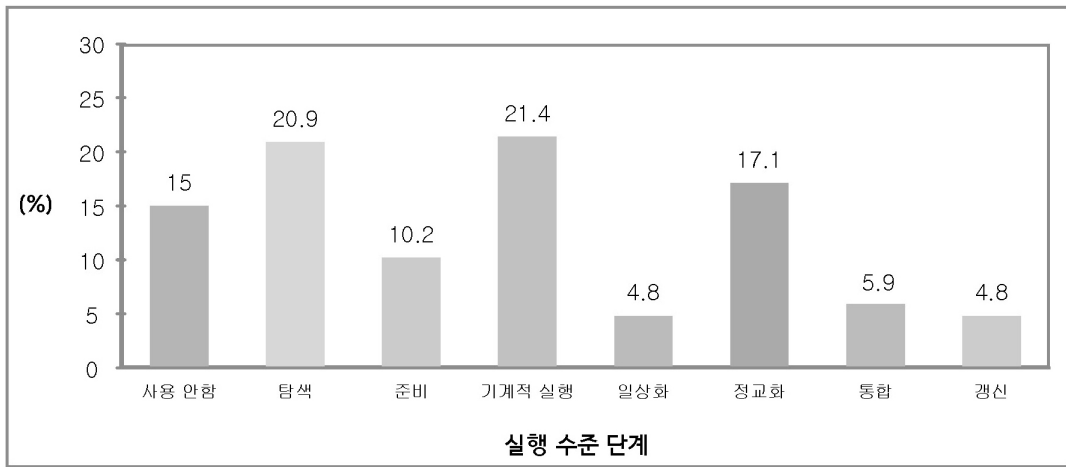
으로 실행하였던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인성 교육이 지금까지 실행하였던 창의성 교육 또는 인성 교육과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가정과 교사들이 사용하였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의미있게 수정하거나 변화시켜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도 필요하다.

2.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

가정과 교사들은 창의·인성 교육 실행에 있어 기계적 실행 수준(수준 3; 21.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탐색 수준(수준 1; 20.9%), 정교화 수준(수준 5; 17.1%), 사용하지 않는 수준(수준 0; 15.0%), 준비 수준(수준 2; 10.2%), 통합 수준(수준 6; 5.9%), 갱신 수준(수준 7; 4.8%), 일상화 수준(수준 4; 4.8%) 순으로 나타났다(표 7과 그림 3 참조). 즉 21.4%의 교사가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인 실행 단계인 기계적 수준에 있으며, 20.9%의 교사가 아직 실행하지 않았으나 이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실행에 필요한 조건을 탐색하는 탐색 수준에 있었으며 15%의 가정과 교사는 이 교육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반면에

〈표 7〉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 수준

실행 수준		n(%)	합 n(%)
수준 0	사용하지 않는(non-use) 수준	28(15.0)	86(46.1)
수준 1	탐색(orientation) 수준	39(20.9)	
수준 2	준비(preparation) 수준	19(10.2)	
수준 3	기계적 실행(mechanical) 수준	40(21.4)	101(53.9)
수준 4	일상화(routine) 수준	9(4.8)	
수준 5	정교화(refinement) 수준	32(17.1)	
수준 6	통합(integration) 수준	11(5.9)	
수준 7	갱신(renewal) 수준	9(4.8)	
계		187(100)	187(100)



〔그림 3〕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 수준

10%의 교사는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수는 가정과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일상화 수준에서 실행하거나 통합하거나 이 교육 외의 점 더 새로운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갱신의 수준에 있었다. 46.1%의 가정과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지 않으며 실행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과 교사가 기계적 실행(수준 3; 21.4%)에 있다는 결과는 창의·인성 교육을 이상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실행할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해석된다(김경자 역, 1993 재인용).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방법을 익히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기계적 실행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김경자 역, 1993 재인용),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 학

년에서 실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 수준이 기계적 실행 단계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방법들을 완전히 습득해서 더 높은 실행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계적 실행 수준과 일상적인 실행 수준 단계는 본래 Hall(1987)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을 단순히 한 단계 올려 일상적인 실행 단계로 이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즉,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을 정교화의 단계까지 올려야 실제적으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실행중인 자신의 창의·인성 교육 방식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가정과 교사

들은 마이크로티칭이나 동료 장학 등을 통해 자신의 수업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교사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기에 교사들의 실행 수준을 파악하여 창의·인성 교육이 높은 수준으로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수준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과 교사들이 창의·인성 교육을 이해하고 실행을 시도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의 실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해 주거나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동에 대해 직무연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실태

<표 8>에서 보듯이, 가정과 교사들은 현재 ‘인성 교육(56.1%)’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실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창의·인성 교육(31.0%)’, ‘창의성 교육(6.4%)’, ‘창의성과 인성 교육 모두 실행 안함(6.4%)’의 순으로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인성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행한다고 응답한 교사들과 창의성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행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교육이 대두된 배경에 창의성 교육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인성 교육, 창의성과 인성간의 연관성,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 모두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

고 있는 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여 실행해 보도록 격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창의·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은 평균은 5점 만점에 3.76이었고, 창의성 요소의 평균은 3.59, 인성 요소의 평균은 3.94로 보통보다 높았다. 창의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 개방성/민감성(3.97)을 가장 많이 실행하였고,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3.79), 호기심/흥미(3.73), 비판적 사고(3.68), 논리/분석적 사고(3.63), 문제발견능력(3.61), 독창성(3.57), 유추성(3.47), 유창성/융통성(3.46), 정교성(3.46), 상상력(3.37), 몰입/공감(3.37)의 순으로 실행하였다. 인성 교육 요소는 실천력(4.07)을 가장 많이 실행하였고, 다음으로 협동/배려/공정(4.06), 자기관리능력(4.04), 시민의식(4.04), 진로개발능력(4.03), 환경친화능력(3.95), 책임(감)/소유(3.94), 의사결정능력(3.89), 신뢰/정직/약속(3.88), 자율성(3.86), 글로벌역량(3.55)의 순이었다(표 9 참조).

이러한 결과는 문용린과 최인수(2010a)가 교과담당교사와 교과담당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가장 많이 실행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들의 연구에서는 ‘흥미’, ‘다양성’, ‘호기심’을 가장 많이 실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이들의 연구에서는 본 실행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개방성’과 ‘문제해결능력’은 낮았고 본 연구에서 비교적 낮은 실행 정도를 보인 ‘상상력’은 창의성 요소 중 인지적 요소에서 가장 높았다. 인성 요소도 문용린과 최인수(2010a)의 연구에서 ‘책임’이 가장 높았으며 ‘배려’, ‘소유’, ‘약속’, ‘공정’, ‘정직’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실천력’, ‘배려’, ‘시민의식’, ‘자기관리 능력’, ‘진로개발능력’의 순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달랐다.

(표 8) 창의·인성 교육에서 치중하여 실행하는 교육

문항 내용	n	%
1 인성 교육에 치중	105	56.1
2 창의성 교육에 치중	12	6.4
3 창의성과 인성 교육에 치중	58	31.0
4 창의성과 인성 교육 모두 실행 안함	12	6.4
계	187	100

〈표 9〉 창의·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

순위	창의성 요소 (문항번호)	M(SD)	순위	인성 요소 (문항번호)	M(SD)
1	개방성/민감성 (9)	3.97(0.82)	1	실천력 (17)	4.07(0.78)
2	문제해결능력 (8)	3.79(0.78)	2	협동/배려/공정 (14)	4.06(0.72)
3	호기심/흥미 (11)	3.73(0.83)	3(2)	시민의식 (20)	4.04(0.85)
4	비판적 사고 (6)	3.68(0.84)	3(2)	자기관리능력 (19)	4.04(0.79)
5	논리/분석적 사고 (5)	3.63(0.77)	5	진로개발능력 (22)	4.03(0.80)
6	문제발견능력 (7)	3.61(0.84)	6	환경친화능력 (23)	3.95(0.95)
7	독창성 (10)	3.57(0.85)	7	책임(감)/소유 (15)	3.94(0.78)
8	유추성 (3)	3.47(0.83)	8	의사결정능력 (16)	3.89(0.76)
9(2)	유창성/융통성 (1)	3.46(0.85)	9	신뢰/정직/약속 (13)	3.88(0.82)
9(2)	정교성 (4)	3.46(0.83)	10	자율성 (18)	3.86(0.78)
11(2)	상상력 (2)	3.37(0.85)	11	글로벌역량 (21)	3.55(0.97)
11(2)	몰입/공감 (12)	3.37(0.93)			
계		3.59(0.51)	계		3.94(0.55)
총 계			총 계		3.76(0.47)

앞선 결과에서 보였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와 실행 수준이 낮은 반면 창의·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온 것은, 가정과 교사들이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각각 실행하는 정도가 높으며 이러한 자신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실행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혼란을 갖고 있지만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실행 정도가 높으므로 앞으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병합하여 실행한다면 가정과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실행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가정과 교사들이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해도 실행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즉, 가정과 교사가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할 때 어려운 점으로 ‘창의·인성 교수 방법 관련 자료 부족’을 64.7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창의·인성 교육 연수 기회 적음(40.11%)’,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 설정(평가 도구 개발) 어려움(38.50%)’, ‘창의·인성 교육 연수 기회 적음(40.11%)’, ‘창의·인성 교육 방법 모름(25.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사들은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에 있어 ‘창의·인성 교수 방법 관련 자료 부족’(64.71%)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미옥과 채정현(2005)의 연구에서 가정과 교사들이 가정교과에서 도덕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자료 부족에서 찾은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창의·인성 교육 연수 기회 적음’이 40.11%의

〈표 10〉 창의·인성 교육 실행의 어려운 점(다중응답)

문항 내용	n	%
1 창의·인성 교육 방법 모름	48	25.67
2 창의·인성 교수 방법 관련 자료 부족	121	64.71
3 창의·인성 교육 연수 기회 적음	75	40.11
4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 설정 (평가 도구 개발) 어려움	72	38.50
5 기타	17	9.09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정미정과 채정현(2004)의 연구에서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학교 자체 연수와 학회 연수 외에 다양한 연수 기회의 부족에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자체적인 연수가 교사에게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학회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연수를 받지 않고 학회의 자료만으로는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학회에 참여하는 교사는 극히 일부이며, 학회에 참여할 정도의 관심이 있다면 이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서 높은 단계의 관심과 높은 수준의 실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학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학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학회 이외에서 직접적으로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8%의 가정과 교사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 설정(평가 도구 개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미옥과 채정현(2005)의 연구에서도 도덕성 교육의 지도 수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화된 평가도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창의·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진학 및 대학입시(평가의 문제)’를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높은 수준으로 실행한다고 하여도 진학 및 대학 입시와의 관련성이 적으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기 힘들고, 이로 인해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측된다. 창의·인성 교육은 앞선 문헌 고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내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객관적 수치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참된 창의·인성 교육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남명호 외(2010)와 서지영 외(2010)가 제시한 서술형 평가 확대와 수행 평가의 내실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9.09%)의 교사는 기타 응답으로 ‘수업 시수 부족’, ‘블록타임제 이용 어려움’, ‘학교 업무 과다’, ‘교재 연구 시간 부족’, ‘학교 환경이나 여건의 어려움’, ‘진도 나가기 급급함’, ‘창의·인성의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탁상공론의 폐해라 생각됨’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가정과 교사들은 가정과의 수업 시수 부족으로 인해 블록타임제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업 이외의 많은 학교 업무로 인해 교재 연구 시간이 부족하며, 학교의 환경이나 여건이 아직 창의·인성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교사들이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할 때 어려운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창의·인성 교육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창의·인성 교육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문항은 <표 1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4.19로 높은 평균을 보이며, 교육과학기술부(2009b)가 제시한 ‘창의·인성 교육의 기본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표 11> 창의·인성 교육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문항 내용		M	SD
1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과 가치 확립	4.09	0.68
2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내용	4.27	0.66
3	창의·인성 교육을 담당할 교수·지원 인력 확보	4.21	0.75
4	창의성과 인성을 증시하는 가정과 수업 문화 조성	4.29	0.68
5	지역 사회·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 교육 추진	3.94	0.74
6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체험활동의 확대	4.34	0.69
계		4.19	0.51

가정과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체험활동 확대(4.34)를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가정과 수업 문화 조성(4.29),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내용(4.27), 창의·인성 교육을 담당할 교수·인력 확보(4.21),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과 가치 확립(4.09), 지역 사회·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 교육 추진(3.9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가정과 교사들이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중 가정과 수업에서 창의·인성과 관련된 체험 학습을 확대하고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하며,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과 가치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정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행 수준, 실행 실태를 진단하고 파악하여 관심 단계와 실행 수준에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로 얻은 결과는 향후 있을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 자료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가정과교육에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과 체계적 무선 표집을 통해 총 1,557부를 off line과 on line을 이용하여 총 4차에 걸쳐 설문문을 의뢰하였고, 회수된 187부의 설문지를 SPSS for window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는 정보적 관심(단계 1; 85.5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적 관심(단계 2; 85.18), 지각적 관심(단계 0; 82.15), 운영

적 관심(단계 3; 81.88), 강화적 관심(단계 6; 68.80), 협동적 관심(단계 4; 61.97), 결과적 관심(단계 5; 59.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 단계 중 초기 단계인 지각적 관심부터 운영적 관심 단계에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실행한 적이 없거나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 관심(단계 5; 59.76)과 협동적 관심(단계 4; 61.97)은 낮게 나타났지만 강화적 관심(단계 6; 68.80)이 높게 나타난 현상은 교사들이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각각 실행하는 형태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자극 없이는 창의·인성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의미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 유형은, ‘자신(45.0%)’ 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관(33.2%)’, ‘업무(15.0%)’, ‘결과(6.9%)’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사들 중 2/3 이상이 자신 유형과 무관 유형에 속했으며 무관심, 정보적, 개인적 단계에 해당하였고, 이것은 사실상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은 기계적 실행 수준(수준 3; 21.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탐색 수준(수준 1; 20.9%), 정교화 수준(수준 5; 17.1%), 사용하지 않는 수준(수준 0; 15.0%), 준비 수준(수준 2; 10.2%), 통합 수준(수준 6; 5.9%), 갱신 수준(수준 7; 4.8%), 일상화 수준(수준 4; 4.8%)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 실행 수준이 아직까지 기존의 방식, 즉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으로 기계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수준 3)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고 더 알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실행할 것이 예측되는 탐색 단계(수준 1)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탐색 단계와 같이 정교화 단계(수준 5)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정교화 단계(수준 5)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예전에 실행하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이 아닌,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각각 실행하는 과거의 형태의 교육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 수준이 정보화 단계(수준 5)에 있는 교사들이 창의·인성 교육이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에 비하여 그 교육적 효과나 방법에서 효

과적이며 지금 실행하고 있는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변화시켜 창의·인성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아직은 낮은 실행 수준을 갖고 있지만, 적합한 지원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실행 수준으로 올라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실태는 창의성 교육(6.4%)과 창의·인성 교육(31.0%)보다 인성 교육에 치중(56.1%)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가정과 교사들은 ‘글로벌 창의인재’를 ‘실용적인 사람(55.1%)’ 즉,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사람(30.5%)’,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있는 사람(12.8%)’이라 생각하였다.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서 3.76이었고, 창의성 교육 요소의 평균은 3.59, 인성 교육 요소의 평균은 3.94로 보통보다 높았다. 창의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 개방성/민감성(3.97)을 가장 많이 실행하였고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3.79), 호기심/흥미(3.73), 비판적 사고(3.68), 논리/분석적 사고(3.63), 문제발견능력(3.61), 독창성(3.57), 유추성(3.47), 유창성/융통성(3.46), 정교성(3.46), 상상력(3.37), 몰입/공감(3.37)의 순으로 실행하였다. 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 실천력(4.07)을 가장 많이 실행하였고, 다음으로 협동/배려/공정(4.06), 자기관리능력(4.04), 시민의식(4.04), 진로개발능력(4.03), 환경친화능력(3.95), 책임(감)/소유(3.94), 의사결정능력(3.89), 신뢰/정직/약속(3.88), 자율성(3.86), 글로벌역량(3.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에 있어 ‘창의·인성 교육 방법 관련 자료 부족(64.71%)’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 응답했으며, ‘창의·인성 교육 연수 기회 적음’이 40.11%로 그 뒤를 이었다.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 설정(평가 도구 개발) 어려움’은 38.50%, ‘창의·인성 교육 방법 모름’은 25.67%로 나타났다.

창의·인성 교육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체험활동의 확대’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창의성과 인성을 증시하는 가정과 수업 문화 조성’이 4.29,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창의·인

성 교육 내용’이 4.27이었으며 ‘창의·인성 교육을 담당할 교수·인력 확보’가 4.21,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과 가치 확립’이 4.09였다. ‘지역 사회·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 교육 추진’은 다른 요소들 보다는 낮은 3.94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와 실행 수준, 실행 실태를 알아본 결과,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가정과 교사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실행 수준도 낮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실행 실태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통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교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에서 이미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 교육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인 만큼 가정과 교사들의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교사의 관심 단계와 실행 수준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의 여건과 문화 조성, 학교 관리자와 교육행정가,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기술·가정과교육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가정영역을 담당하는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모든 과목의 교사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전국의 모든 과목 또는 전국 모든 가정과 교사를 연구에 참여시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창의·인성 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모든 교사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수 대상자를 개인적 특성이 유사한 교사들끼리 그룹지어서 그룹별로 적합한 방법과 내용의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의·인성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창의·인성 교육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관심과 수준 실태에 대한 조사에 그쳤으나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가정과교육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학생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개발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과교육의 발전을 위해 실행되는 연구와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가정과 교사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 참여하는 교사들은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이 없는

교사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단위로 가정과 교사를 연합하여 각종 자료 공유와 가정과교육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각종 연구와 총회, 학술 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a).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b).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창의·인성 선도학교 관리자 연수 자료 - 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 -**. 제 3차 대통령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김양동 (2010). **창의인성교육의 근본적 해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남명호, 김소영, 서지영 (2010). **창의력·인성 교육을 위한 평가 방법 개선**.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문용린, 최인수 (2010a). **창의·인성 교육 표준지침(교장연수용). 창의·인성 선도학교 관리자 연수 발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5.18.).
- 문용린, 최인수 (2010b). **미래 인천 교육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의 방향**. 2010 인천 교육 심포 지음 자료집, 19-29.
- 박미정, 김영애 (2011). **가정교과에서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 개발**. 2010년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5-66.
- 서지영, 남명호, 김소영, 이원석, 최미숙, 홍수진 외 (2010). **창의력 제발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수행평가 활성화 방안 연구**(KICE. 연구보고 CRE 2010-1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용운 (2004). **고등학교 교사의 학교교육과정 개발 영역과 교육과정 관심수준 관계**. **교육과정평가연구**, 17(1), 19-41.
- 이재훈 (2010).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인천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2010 인천 교육 심포 지음 자료집, 2-18.
- 정미정, 채정현 (2004). **기술·가정과 교사의 수행평가에 대한 관심도, 실행수준, 실행실태 및 관련 변수**.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6(1), 79-91.
- 조미옥, 채정현 (2005). **중학교 가정교과교사의 가정교과에서의 도덕성 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지도수행 정도**.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7(2), 257-272.
- 채정현 (1996). **미국 오하이오주의 실천적 문제 중심 모형을 적용한 ‘일과 가족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도**. **대한가정학회지**, 34(4), 327-343.
- 최유현 외 (2010). **핵심역량증진을 위한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 **교육과정평가연구**. 13(1), 165-187.
- 최준환, 박춘성, 연경남, 민영경, 이은아, 정원선 외 (2009).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창의·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창의교육연구**, 9(2), 89-112.
- 홍배식 (2010). **미래 인천 교육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의 방향**. 2010 인천 교육 심포 지음 자료집, 69-91.
- 홍후조 (2002).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문음사.
- Hord, S.M, Rutherford, W. L, & Hall, G.E (1987). **Taking Change of Change**. Alexandria, VA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김경자 역. (1993). **교육과정혁신**. 서울: 교육과학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와 실행 수준, 그리고 실행 실태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자료는 전국의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 표집과 편의 표집을 하여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18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주로 Hall(1987)이 개발한 혁신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와 실행 수준에 대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는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개발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자료는 SPSS/window(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는 정보적 관심 단계(85.5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 관심 단계(85.18), 운영적 관심 단계(81.88), 지각적 관심 단계(82.15), 강화적 관심 단계(68.80), 협동적 관심 단계(61.97), 그리고 결과적 관심단계(59.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수준은 기계적 실행 수준(수준 3; 21.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탐색 수준(수준 1; 20.9%), 정교화 수준(수준 5; 17.1%), 사용하지 않는 수준(수준 0; 15.0%), 준비 수준(수준 2; 10.2%), 통합 수준(수준 6; 5.9%), 갱신 수준(수준 7; 4.8%), 일상화 수준(수준 4; 4.8%) 순이었다.

셋째,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실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 이상의 가정과 교사(56.1%)는 가정과 수업에서 인성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31.0%의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을 모두 실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수의 교사(6.4%)는 창의성 교육을 실행한다고 응답하였고 같은 수의 교사(6.4%)는 창의성과 인성 교육 어느 것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과 교사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창의·인성 교육 요소의 실행은 평균은 5점 만점에서 3.76이었고 창의성 요소의 평균은 3.59, 인성 요소의 평균은 3.94로 보통보다 높았다. 창의성 교육 요소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 개방성/민감성(3.97)을 가장 많이 실행하였고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3.79), 호기심/흥미(3.73), 비판적 사고(3.68), 논리/분석적 사고(3.63), 문제발견능력(3.61), 독창성(3.57), 유추성(3.47), 유창성/융통성(3.46), 정교성(3.46), 상상력(3.37), 몰입/공감(3.37)의 순으로 실행하였다. 인성 교육 요소는 실천력(4.07)을 가장 많이 실행하였고, 다음으로 협동/배려/공정(4.06), 자기관리능력(4.04), 시민의식(4.04), 진로개발능력(4.03), 환경친화능력(3.95), 책임(감)/소유(3.94), 의사결정능력(3.89), 신뢰/정직/약속(3.88), 자율성(3.86), 글로벌역량(3.55)의 순으로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할 때 어려운 점으로, 많은 가정과 교사(64.71%)는 창의·인성 교육을 실행할 수업 자료가 부족한 데 있다고 하였으며, 40.11%의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의 연수 기회가 적은 데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38.50%의 가정과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25.67%의 교사는 창의·인성 교육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창의·인성 교육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체험활동의 확대'(4.34), '창의성과 인성을 증시하는 가정과 수업 문화 조성'(4.29),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내용'(4.27), '창의·인성 교육을 담당할 교수·인력 확보'(4.21),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과 가치 확립'(4.09), '지역 사회·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 교육 추진'(3.9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5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6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19일